



# 이상한 나라의 지구



김병숙  
지음

2019 무화과

## 이상한 나라의 지구



1. 우주인 예수를 만난다.
2. 21세기와 새복음
3. 가까워진 천국
4. 신과 우주와 인간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6.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7.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8.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9. 이상한 나라의 지구
10. 특별한 시대를 살며
11. 밀빠진 그릇이었나

김병숙  
저  
음

## 이상한 나라의 지구

출간일 2018년 6월 30일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E-Mail [jesusufo2@gmail.com](mailto:jesusufo2@gmail.com)

[cafe.naver.com/jesusufo5](http://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http://blog.naver.com/jesusufo5)

homepage [jesu-ufo.com](http://jesu-ufo.com)

© 무화과 2014년 5월

ISBN:979-11-87209-40-9



동쪽을 보라.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파파쏘스(근월의 아버지)

이번 주기에 신께서 짜놓으신 최대의 계획은 지구 태양계가 차원전환을 위한 구조거품(거대한 비누방울 같은 보호막)에 진입한 후 시리우스 성단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sup>1)</sup>

---

1) 새천년 간 'UFO와 외계문명의 메시지'에서 인용.



## < 서문 >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새로운 빛의 목적은 어두움과 빛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법칙은 독특한 일종의 물리적 법칙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혼과 물질이 어떤 기이하고도 새로운 방식으로 통일되는 것이고, 몇가지 다른 형태의 현실들이 융합되는 공간이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이와 같은 공간은 그곳에 거주할 특별한 영혼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과업을 위해 선택된 존재들이다.<sup>1)</sup>

위의 문구는 시리우스 우주인의 메시지에 나오는 말이다. 어두움과 빛을 통합한다는 말은 선과 악을 뒤섞어놓는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영적/육체적 삶 모두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는 뜻이다. 책의 제목으로 삼은 ‘이상한 나라의 지구’란 앞으로의 지구가 그런 행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상한 나라’일까?

저 고열과 고압의 태양 안에는 얼음으로 이루어진 고체 행성이 있어 그곳에 태양인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우리와 달라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고, 우리는 육체적/감각적 삶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상한 나라의 지구’에서는 그 양자 모두를 추구할 수 있지만 완전한 물질성도 아니고 완전한 에테르성도 아닌 행성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눈으로 보기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번 주기에 신께서 짜놓으신 최대의 계획은 지구 태양계가 차원전환을 위한 구조거품(거대한 비누방울 같은 보호막)에 진입한 후 시리우스 성단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sup>2)</sup>

2035년 경이면 지구와 태양계는 플레이데스를 공전하던 궤도에서 벗어나 시리우스를 공전하는 궤도로 바뀐다고 한다. 신께서 짜놓으신 최대의 계획

1) 은하문명 간 ‘은하연합 우주함대로부터의 메시지’에서 인용.

2) 새천년 간 ‘UFO와 외계문명의 메시지’에서 인용.

이란 최대의 은총이라는 말과 같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불행한 결말을 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의 계획대로라면 지구는 앞으로 약 1천년 동안 광자대 안에 머물 예정이었고, 사탄과 그 무리는 다시 무저갱에 갇힌다고 했다. 그건 전혀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시리우스 성좌로의 위치이동이 계획된 것이다.

2천년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기 전까지는 ‘은하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루시퍼/사탄이 태양의 세계에서 행성의 세계로 삶의 현장을 옮긴 것은 군대에서의 탈영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추락을 죄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우주의 지고자이신 미카엘 대천사도 아래와 같이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을 허용하다는 우주의 법을 전한다.**

태양에서의 삶이 아니라 물질행성의 삶을 선호했던 우리 조상들의 혈통 때문인지 우리는 아직도 5차원으로의 상승을 주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처럼 무저갱에 가두는 것은 더 이상 우주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리우스에서의 새로운 삶을 허용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요즘은 TV만 켜면 먹고 마시는 프로그램들이 넘쳐난다. 옛날 임금님 부럽지 않은 성찬을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이상의 천국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자가용을 몰고 산과 들로 나갈 수 있으니 이 또한 천국백성 부럽지 않은 문명적 삶이 아닌가?

그러나 모두 마음 한 구석에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숨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내일이면 다시 맞이해야 하는 직장생활의 부담감, 갈수록 어려워지는 인간관계의 복잡성, 뉴스마다 장식하는 테러와 사건사고들도 있다. 테러는 먼 나라의 문제라 해도,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린 깡패들의 소굴 같고, 딸아이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생에게도 화장품을 사줘야 한다. 성폭행, 왕따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유행이 된지 오래지 않았는

가?

싸이코패스라는 명칭이 영화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서양의 어떤 나라들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던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를 장식하는 단어가 되었다. 차를 몰고 산과 들로 나가봤자 깨끗한 시냇물을 만나기도 어렵고, 산에서나 해변에서나 눈부신 햇살은 마음놓고 반길 수도 없다. 오존지수와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시킨다고 하기 때문이다.

휴가든 주말이든 마음 한 구석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지도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오면 기다리는 아늑한 집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두려워 창문을 마음대로 열 수 없고, 물도 ‘생수’라는 상품을 사서 마셔야 한다. 머지않아 공기도 캔에 담겨 상품으로 나오는 것을 사서 마시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곧 천국이라 하고, 개선된 미래를 꿈꾸자는 사람들을 비웃는다. 맛있는 음식과 매력적인 여성과 남성들이 넘쳐나면 그곳이 곧 천국일까?

과학적 발전과 물질적 풍요는 천국 비슷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분명 천국은 아니다. 한참이나 모자라는 가짜 천국이라고 한다면 화를 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진짜 천국을 만들 필요성을 느낀 우주의 선조들이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천국’이란 세상이 만들어졌으며, 그 천국은 죽은 후에나 가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재하는 우주의 선진문명들인 것이다.

시리우스 별자리에서의 우리의 삶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육체적 만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영적 만족도 추구하는 최상위의 하늘 나라 백성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자 김 병 속

(사용된 인용문과 조각그림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 후에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차례 >

### 1부 제3의 천국

1. 아직도 비어있는 천국...../15
2. 신의 오른편과 왼편
3. '새로운 종'의 인간
4.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자아
5. 제3의 에너지에서 만나는 동양/서양
6. 은총과 수납...../33
7.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
8. '어린왕자'와 순수성에의 향수
9. 역사의 순환과 우주적 순환
10. 4차원, 과학자들의 세계...../48
12. 우주인들의 사랑과 결혼
13. 별과 별들을 이어주는 끈, 사랑
14. 멕시코의 마약과 '자유영혼'
15. 영혼과의 약속을 돌아볼 때...../66
16. 큰 그림과 작은 그림
17. 21세기적 화두
18. 상승, Aura, 유전자
19. 소용돌이 시대의 행복의 조건
20. 능률적 사회, 능률적 인간...../79
21. 중용의 시대적 유용성
22. 육체와 물질주의
23. 육체와 의식과 지구
24. 에너지, 유전자, 신성...../94
25. 21세기적 거듭남
26. 역사의 신이 계신다면
27. 제3의 길, 제3의 천국
28. 가이아 여신과 여성가장 행성
29. 12번째 행성과 우리의 미래
30.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117
31.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
32. 사막과 이슬람과 여성
33. 세계적 문제들의 돌파구...../129
34. 진화/순환하는 우주와 절대정신
35. 우주의 원앙새들과 황조롱이
36. 뉴에이지/뉴웨이브 운동의 개요
37. 혼란의 시대와 영혼의 닻
38. 사탄의 교회와 이성과 영성...../143
39. 우리 모두는 당나귀귀를 가졌다
40. 다시 등용되는 일꾼
41. 아카샤 세계와 지혜의 시대
42. 플레이아데스와 루시퍼 혈통...../159
43. 두 개의 전투행성
44. 어마어마한 우주전쟁
45. 황소별자리/플레이아데스 별자리
46. 두개의 태양과 새예루살렘
47. 3-4차원 학교의 졸업...../174
48. 여성과 지구의 운명
49. 또 하나의 운명 제3의 천국
50. 문조론손 판사와 에녹서의 예언
51. 수퍼맨은 없다...../189
52. 사랑에 다가가는 단계들
53.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
54. 우리는 현실과 미래의 창조자들
55. 천국건설과 이상적 삶...../201
56. 문조론손 판사/미카엘 대천사께
57. 방탄소년단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58. 스위치가 작동되기를 기다리며

### < 2부 지구와 행성자아 >



- 1.행성적 자아와 그 색깔...../219
- 2.아는 것이 힘이다.
- 3.별과 지구와 인간과 원자
- 4.감사로부터 시작하자.
- 5.케이프스와 알키오네 신화...../236
- 6.팔레스타인의 콘크리트 장벽
- 7.신화적 상상과 뉴에이지적 현실
- 8.미녀와 야수, 말일성도 교회
- 9.뉴에이지 정신의 기초지식...../250
- 10.어느 썬일즈맨의 상품
- 11.호모데우스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나
- 12.‘신은 죽었다’와 인본주의
- 13.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만남
- 14.역사와 현재와 우리의 자아상....272
- 15.별의 씨앗들과 주인 의식
- 16.정신주의와 물질주의
- 17.두뇌과학과 우주심(心)
- 18.백조의 노래...../289
- 19.니체의 독설과 인간의 자존의식
- 20.칸트는 도덕 광신자였다?
- 21.호모데우스적 집단자아
- 22.뇌과학의 악용과 막가는 과학기술
- 23.역사의 신의 비망록...../307
- 24.알래스카와 앵커리지
- 25.복핵문제와 아리랑 고개
- 26.진인사 대천명
- 27.민족주의와 뿌리찾기...../321
- 28.이사준비를 해야 할 때
- 29.스티븐호킹과 케플러 망원경
- 30.반전의 이야기들과 시대의 지혜
- 31.두 개의 풍요의 뿔...../336
- 32.역사적 쌍둥이들과 판단의 시대
- 33.경계선들에서의 만남
- 34.과학자들의 꿈과 영혼들의 희망
- 35.공(空)과 무(無)로 채워진 우주.....351
- 36.애꾸눈 보안과 ‘루스티’...../355
- 37.시(詩)와 문화/예술의 신 오딘
- 38.북유럽 신화와 호모데우스
- 39.자아의식의 공간과 선행
- 40.곳간의 쓸별레와 우리의 현실...../372
- 41.다시 태어난 ‘신’과 청정한 지구
- 42.역사적 교훈과 신화적 교훈
- 43.동양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
- 44.단체 신곡의 코에디적 요소들...../386
- 45.화성인, 한박사를 만나다.
- 46.에펠탑과 영구 평화론
- 47.리바이 도울링과 유랜시아서
- 48.몬조론손 판사와 아쉬타남께...../403
- 49.신성에 대한 이해/우주시민 자격증
- 50.공의와 사랑의 하느님을 믿음시다
- 51.구원은 신성에 의해서만 가능한가?
- 52.육체의 99%는 빈 공간인가?...../421
- 53.세계적 문제들의 돌파구
- 54.바보들이 되지 맙시다
- 55.진화 순환하는 우주와 절대정신
- 56.미드웨이어와 몬조론손 판사...../434
- 57.놀라운 축복 새 구세주의 시대
- 58.감각적 삶에 대하여
- 59.유랜시아서와 지구의 운명
- 60.미투운동과 판도라의 상자...../446
- 61.너희가 어린이가 같지 아니하면
- 62.몬조론손 판사님의 메시지
- 63.지구가 식민지화 되어선
- 64.다니엘이라는 이름...../458
- 65.종교와 종교 최고신
- 66.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
- 67.사랑도 계명도 평화를
- 68.UFO 음모론들의 개요...../473
- 69.나노과학과 영생의 문제
- 70.끝맺음의 글



### < 1 > 아직도 비어있는 천국

아이작 뉴턴과 같은 시대에 역시 과학자로 살았던 스베든보리라는 스웨덴 사람이 있었다 한다. 그는 그 당시의 ‘접촉자’로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UFO와 수시로 만났고 그들의 세계에도 갔었다고 한다. 그가 보고 온 천국들은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가장 높은 천국은 아주 어려서 사망했기 때문에 악함에 물들지 않았던 영혼들의 세상이었다고 한다. 그 아래의 천국은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를 희생해 가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선구자들의 천국이고, 또 그 아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그 생전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천국이었다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3계층의 천국들 그 위에 최상위의 천국이 있었는데 그곳은 아직 비어 있는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 한다. 아마도 그곳은 3계층의 하늘나라 백성들이 지닌 모든 덕목들, 순수함, 선구자적 깨달음, 신앙인으로서의 봉사정신, 그 모두를 갖춘 성숙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스도 사난다님이 언급한 ‘제3의 에너지’라는 단어도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그리스도 자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참자아는 영혼적 순수성과, 봉사정신과, 지성적 깨달음이 무르익었을 때 발현되는 신성과의 합일상태라고 한다. 그런 상태를 왜 제3의 에너지라 했는지 사난다님의 설명을 들어보자.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결말은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2원성을 넘어**

선, 더 거대하고 월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에너지(성령)를 창조할 것이며, 그것은 양자(兩者)를 포용하고 초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은 신의 영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sup>1)</sup>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이란 태양인들의 삶과 행성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태양인들은 개체의식이 아니라 전체의식과 집단주의로 살기 때문에 악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행성인들의 삶은 개인주의와 개체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는 것이다. 양자를 포용하는 제3의 에너지,란 물질육체를 가지고 행성에 살면서도 태양인들과 같이 전체의식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극복한 인격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성령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5차원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육체적인 오라(Aura)도 상승하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사난다님의 다음 설명을 들어보자.

여러분의 정신능력과 과학기술을 훨씬 앞서있는 은하인들은 여러분처럼 느끼므로 살지 않고 오직 생명에 관한 연구와 지적 탐구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신의 법칙을 받아들여 거기에 순종하지만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랑의 감정이 없이 단지 지성적으로 그 법을 따릅니다.

느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태양인들의 육체가 무감각의 육체이기 때문이고, 사랑의 감정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성에 대한 욕구가 없고 5감도 없는 육체라는 뜻이다. 고차원으로 갈수록 중성이거나 성구별이 아예 없는 생명체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풍부한 감성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은 가슴으로 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 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감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요.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신의 계획은 자유 의지와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우주의 이 지역에서 새로운 종(種)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sup>2)</sup>

1) 은하문명 간 ‘2012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에서 인용.

2) 은하문명 간 ‘예수그리스도의 충격 메시지’에서 인용.

자유이지란 에덴동산에서처럼 지혜를 금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1원성이 아닌 2원성, 즉 남/녀의 양성으로 산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의 우리와 같이 감정과 감각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과 불완전성들 이대로는 제3의 길이 열릴수 없다. 다만 모든 구도자들의 목표인 구원/성령/해탈에 도달했을 때 비로서 제3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만든 세상이 곧 '이상한 나라의 지구' 즉 제3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영혼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에서 양자 모두를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통합적 만족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제3의 길이고 제3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이 지역에서는 아직 성공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것은 지구가 천사들과 그 후손에 의해 개척되었던 행성이기 때문이고 또 현재도 그만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신 판단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긍지와 희망으로 지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2 > 신의 오른편과 왼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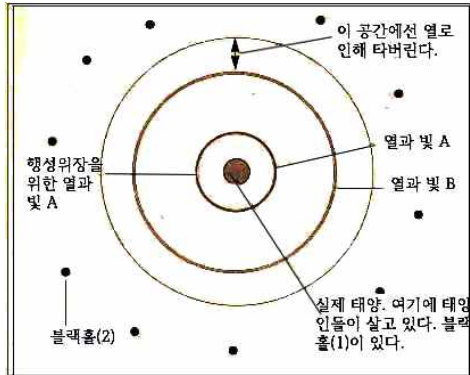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리면 학동들은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열심히 힘을 겨루지만 운동회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청팀과 백팀의 선수들은 평소의 친구로 돌아간다.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대립 현상들도 그렇게 깨끗이 앙금이 없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

흑과 백, 선과 악, 신의 오른편과 왼편, 빛의 우주와 물질우주, 그런 단어들이 모든 대립현상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다. 이 시대가 종교에서 말해온 ‘말세’라는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흑과 백, 선과 악, 신의 오른편과 왼편, 빛의 우주와 물질우주 등등의 가치관적 대립에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 우주인들이 그 판단과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메시지들을 전해 주었지만 우리의 의식적 지성적 수준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보다 명확한 판단과 이해를 위해 쉽고 빠른 길부터 찾아보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빛의 우주와 물질우주란 태양들의 세계와 행성들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다. 필자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지만, 저 고열과 고압의 태양들 속에 우주인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메시지에서 자주 만나는 ‘중심태양’이란 강력한 중력을 지닌 물리적 태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 속에 있는 행성과 행성인들을 뜻하는 것이다. 아니 태양 속에 살고 있으니까 태양인들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대부분 천국 기행문에서 말하기를 천국에 들어갈 때 무서운 불의 구름을 통과했다고 한다. 또 천국의 유리바다 위에서 춤을 췄다는 말도 꼭 등장한

다. 태양 속의 행성들은 그 몸체가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음의 바다가 유리바다로 보였던 것이다. 천국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얼음의 성격을 띤 행성이라는 뜻이다.



빛은 발하지만 열은 발생시키지 않는 태양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

일까 했는데, 태양들의 바깥쪽에선 열을 발생시키지만 안쪽에서는 약한 열만 발생하기 때문에, 또 얼음행성과의 상쇠성 때문에 태양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다 해도 빛을 발하지 않는 보통 행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존조건이기 때문에 3차원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곳이다. 즉 감각이 예민한 탄소육체를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수분이 70%나 되는 세포식 육체를 졸업하고 DNA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분자식 육체로 바뀌면 태양 내부의 행성에서 적응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태양에도 인간들이 살고 있다니 놀라운 일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수준을 오래 전에 졸업한 신성들의 세계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태양인들은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6-7차원의 수준에 도달한 신인(神人)들이기 때문이다. 신인들이 지닌 육체와 정신도 '나'라는 개체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발생시키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집단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회와 평화로운 삶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빛과 어두움이라는 2분법적인 우주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빛의 우주와 물질우주란 태양인들의 세계와 행성인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신의 오른편과 왼편도 태양인들과 행성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흑과 백, 선과 악은 무엇인가? 흑은 행성들의 세계를 백은 태양들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태양인들의 세계에서는 악이 발생될 여지가 없지만 행성들의 세계에서는 악이 다반사로 발생한

다. 집단의식이 아니라 개체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 개체들의 이기심이 부디칠 때마다 크고 작은 악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동들이 운동회를 끝내고 평소의 친구로 돌아가듯이 우리 지구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화합과 우정을 되찾는 길이 있지 않을까? 아래는 미카엘 대천사의 말씀이다.

**빛과 어두움의 가름이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지구의 나선형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창조주는 생명의 모든 차원에서 밀도가 높은 물질세계에까지 자신의 모습을 들어낸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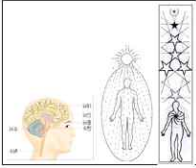
지구에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흑과 백, 선과 악의 발생도 창조세계의 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빛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물질세계에서는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이 주어져 충돌도 발생한다. 나선형의 에너지란 고압과 저압이 만나 발생시키는 회오리바람 처럼 회전하면서 상승한다는 뜻이다. 즉 우주라는 거대한 사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생동감이 있고, 그 생동감 속에 신의 생명력도 살아 숨선다는 뜻이다.

하느님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한다. 그런 다음 하느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니 분리와 이중성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는 곧 지구가 감정 차원의 세계가 된 것을 뜻한다. 그런 지구에서 영혼은 자유의지로 빛의 반대(어두움)를 체험하고, 그런 다음 시간이라는 시험기간을 거쳐 집(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선택하게 된다.

지구인들의 조상이 빛의 세계로부터 ‘추락’했다는 것은 태양인으로 살다가 행성인들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흑과 백, 선과 악, 빛의 우주와 물질우주, 신의 오른편과 왼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1) 은하문명 간 ‘미카엘 대천사의 메시지와 예언’에서 인용.



< 3 > '새로운 종'의 인간

기독교의 흑백론은 천사들의 추락이니 반란 같은 단어로부터 시작된다. 그 내력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자.

과학적 진화와 사회적 진화를 거쳐 이상적인 행성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행성 바깥의 세상은 거칠기 그지없는 우주적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소행성과의 충돌이나 우주 불량배들의 침략, 별들의 끊임없는 우주여행 과정에서도 시시각각의 난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태양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과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저 고열과 고압의 태양을 연구하고 정복하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주인들이 있다고 한다. 6-7차원의 우주인들이며,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에 신이요 하느님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지구인들의 조상도 바로 그런 태양의 세계에 살다가 '추락'을 택했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흑백논이란 태양은 빛이고 지구는 어두움이라는 뜻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곳이 좋아서 지구에 살게 된 우리 선조들의 선택과 추락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양이 아닌 물질행성에 살기를 선호한 우주인들 중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의 천국'이라는 명제가 떠오른 것이다. 빛과 어두움의 중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제3의 삶'이 어떤 것이 될지 사난다님의 설명을 들어보자.



여러분의 정신능력과 과학기술을 훨씬 앞서있는 은하인들은 여러분처럼 느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생명에 관한 연구와 지적 탐구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신의 법칙을 받아들여 거기에 순종하지만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랑의 감정이 없이 단지 지성적으로 그 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풍부한 감성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은 가슴으로 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 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감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요.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신의 계획은 자유의지와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우주의 이 지역에서 새로운 종(種)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sup>1)</sup>

위의 문구 속에는 인간에 대한 최상의 이상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육체와 감성을 지니고 살면서도 신을 사랑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에 우주의 이 지역에서 새로운 종이 된다고 한 것이다. 오죽 힘들면 ‘새로운 종’이라고 했겠는가?

‘느낌으로 살지 않고’는 현재의 우리 육체처럼 5감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5차원 행성에서는 소량의 음식을 먹지만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완전소화를 위한 유동의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물론 우주여행의 편리함을 위해서일 것이고, 그러나 4차원 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얼마든지 감각적 삶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제3의 천국’이란 행성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태양인과 행성인의 삶, 그 중간지대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무한 개인주의나 무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정신을 존중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육체 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감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요.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신의 계획은 자유의지와

---

1) 은하문명 간 ‘예수그리스도의 충격 메시지’에서 인용.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우주의 이 지역에서 새로운 종(種)  
의 되게 하는 것입니다.





#### < 4 >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자아(참자아)

‘제3의 에너지’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와 같은 21세기적 구원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 연금술이란 어둠의 에너지를 제3의 에너지, 즉 그리스도 에너지(성령-그리스도 자아) 안에 존재하는 영적 황금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영적 연금술의 목적을 어두움을 빛으로 혹은 악을 선으로 변형시킨다고 말하지 않았음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은 자연스러운 대칭인데, 그것은 서로의 은총에 의해 존재합니다. 참다운 영적 연금술은 제3의 에너지, 즉 사랑과 이해를 통해 두 양극성을 끌어안는 의식형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진화여정의 진정한 목적은 빛이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양극성(2원성)을 뛰어넘어, 빛과 어두움 양자의 현존 안에서 통합 내지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의식(意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sup>1)</sup>....그리스도 사난다

위의 말을 축약하면,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이라는 2분법적 논리로 나뉘어 싸우지 말고, 그 양자가 서로의 필요성 안에서 용납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두움이 없다면 빛도 의미가 없어지고, 악이 없으면 선도 빛을 발할 수 없듯이 양극성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통합해서 승화시킨 것이 제3의 에너지인 그리스도 자아라는 것이다. 빛은 정신이고 어두움은 육체인데 육체가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빛은 태양들을 의미하고 어두움은 행성들을 의미하는데, 행성들이 없고 태양들만 있다면 그런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태양에 살며 우주를 경영/관리하는 신격체의 우주인들은 할 일이 없어 무료하고, 재미없고, 삶의 의미조차 상실할 것이

1) 이하 모두 은하문명 간 ‘2012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에서 인용.

다.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신다.

신은 완전한 선(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선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물은 정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의 창조물은 활기가 없었고 성장과 확장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선’이란 육체와 그것이 발생시키는 불완전성이 없이 영적 의식(意識)으로만 존재한다는 뜻이고, 우주적으로는 행성들이 없고 태양들만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와 생동감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선과는 다른 요소들을 도입해야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무지(無知)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이 사용한 계획은 무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무지는 선에 반대되는 요소입니다. 무지는 신으로부터 그리고 빛으로부터 분리된 환영을 만들어내고,....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과 권력의 욕구를 낳고, 악에 관한 모든 요소와 변창을 낳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화를 거듭하면 신이 되고, 7차원의 세계는 ‘하느님의 불꽃’인 전 자기성의 의식적 불꽃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에녹이 천국에 갔을 때도 하느님과 건물들이 온통 불꽃으로 보였다고 한 것이다. 그 존재 상태는 완전무결과 영원성을 지니지만 불꽃의 존재와 세상 속에서는 변화가 발생할 수 없다. 영원성만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생성과 소멸, 탄생과 죽음이 존재하는 물질우주가 필요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조자에게도 함께 살아갈 피조물들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다. 영원성으로 지속되는 무료함과 무의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물질우주의 주인공인 ‘인간’이란 존재들은 빛으로써의 완전한 의식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에조차 눈뜨지 못한 무지의 상태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우주에 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만물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데, 그 바탕은 무지(無知)라는 것이다. ‘앓’은 평화와 안식을 주지만 ‘무지’는 불안, 공포, 불만

을 야기시킨다. 불안/공포/불만 그것들이야말로 악의 시발점 아닌가?

악은 곧 무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악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없다. 3차원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앎을 터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선과 악을 왔다갔다 하며 사는 존재다. 악은 분명 초월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은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육체는 어두움이고 악을 창출하는 근원이지만 인간과 육체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인간이 완전한 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육체 자체를 지니지 말고 ‘하느님의 불꽃’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러나 육체의 소산물인 악을 초월했을 때, 즉 그리스도 자아(성령)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가 ‘제3의 에너지’ 상태인 것이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결말은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이라는 2원성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월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에너지(성령)를 창조할 것이며, 그것은 양자(兩者)를 포용하고 초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은 신의 영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다산북스에서 출판한 ‘스베든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란 책에 의하면, 제1천국의 백성들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함의 영혼들이라고 한다. 일단 영혼으로서의 개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으나 어두움에 물들기 전에, 즉 영아나 유아기에 죽음을 맞이했던 영혼들이 제1천국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천국은 아직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아마도 그 초 상위의 천국은 사난다님이 말한 제3의 에너지, 즉 그리스도 자아, 참자아를 성취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선만 알았고 다른 것은 몰랐던 영혼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어두움 모두를 체험하면서 그 중에서 악이 아니라 선을 그리고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한 성숙한 영혼들을 신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부터의 지구가 그런 행성이 될 수 있도록 신께서 그리고 천상의 모든 신의 분신들과 천사들께서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메시지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가로막으며, 2분법적 흑백논리만 내세운다면 그는 고전적 기독교의 테두리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난다님이 주창한 '제3의 에너지'와 똑 같은 '중용'의 길을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제시했다. 즉 동양적인 것은 곧 '뱀'이다, 라는 기독교적 선입견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을 통해 우리가 배운 최고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흑과 백, 동양과 서양, 기독교와 불교..... 많기도 한 그 2분법적 편가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구시대적이고 어린아이 같기도 한 2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아직도 싸운다면 지구의 평화와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거나 혹은 어떤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라는 행성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 5 > '제3의 에너지'에서 만나는 동양과 서양

사난다님이 언급한 '제3'이라는 뜻은 분명 흑과 백, 선과 악이라는 2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다. 인간세상에서도 모든 가치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분명하게 선을 갈라 논할 수 없듯이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 흑과 백의 개념은 교리의 중심에 있는 에덴동산의 설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그 에덴동산의 설화 자체가 신화나 동화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의 지혜를 금했다니 언어도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우주/네바돈 소우주의 지고자이자 통치자이신 미카엘 대천사는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을 허용한다는 우주의 법을 전한다.**

'제3의'라는 단어에 함축된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 기독교적 흑백논리 때문에 현재의 지구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에덴설화에서 최악시 한 '지혜'라는 단어에는 동양적인 것들에 대한 배척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덴동산에서는 지혜를 금했지만 동양에서는 오히려 지혜를 추구하라고 가르쳤다. 에덴설화에서 말한 뱀, 그것은 곧 동양의 지혜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아직도 기독교적 흑백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했거나, 그 결과 사난다님이 강조한 '제3의'라는 주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은 아직도 지혜가 타도의 대상이고 최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가?



종교적 고정관념이란 무척이나 깨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이 깨어지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이성적 발전과 영적 깨어남이 필요하다. 이 시대가 바로 영적 깨어남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지만 간단치가 않은 것은 과학적 이해까지도 있어야 '영적'이란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 깨어남'이란 그렇게 여러 조건들을 필요로 하지만 종교적 고정관념은 쉽사리 깨어질 수 없기 때문에 IS, 알 카에다, 탈레반 같은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종교인들의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3의' 길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자아/성령의 길이고, 참자아의 길이고, 해탈의 길이고, 상생의 길인 것이다. 그 길만이 이 시대의 모든 분쟁과 재앙과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사상, 철학, 종교를 초월해서 '진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서 해답이 주어진다. '진리'란 곧 신성을 의미하고 신성에 가장 가까이 간 상태가 그리스도 자아/성령, 참자아, 해탈, 상생이다.

'제3의'라는 주제는 오래 전에 동양에서도 '중용'이라는 철학적 주제 아래 논의되었음을 안다면 지혜와 동양에 대한 선입견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미묘하니 그 중(中)을 잡으라.<sup>1)</sup>....제3의 지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인심(人心)이 없을 수 없고, 가장 우매한 사람이라도 도심(道心)이 없을 수 없다.....인간의 양면성

대저 하늘이 생민(生民)을 내리신 이래 곧 지체없이 보내준 것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이니, 이로써 이룩되지 않음이 없다....신의 자녀됨

사람의 성은 선(善)을 밝혀 그 처음으로 돌아가게 한다....성리학

총명예지하여 능히 性を 아는 시대가 오면 하늘은 반듯이 명하여 억조의

1) 홍신문화사 간 '대학 중용'에서 인용.

군사(君師)들로 하여금 가르쳐 모두가 性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깨어남의 시대

성인(聖人)이란 나의 마음에도 역시 있는 것을 나보다 먼저 깨달아 성취한 사람이다. 성인의 길을 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지닌 性의 내용을 자각하고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누구나 지니고 있는 5차원 유전자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